

보도시점 2025.9.24.(수) 09:00 배포 2025.9.24.(수) 08:30

특허청, 양자센서 분야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

-

- 나노종합기술원(대전 유성구) 방문해 지식재산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 청취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9. 24.(수) 10시 나노종합기술원(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양자센서 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특허청의 찾아가는 현장소통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양자센서 분야 기술개발 현황 및 업계 동향 등을 소개하고,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향후 동 분야의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자센서를 포함한 양자기술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요 혁신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양자기술을 주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중이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출원인들의 지식재산 활용역량을 높임으로써, 창의성 및 기술혁신을 통해 얻은 소중한 연구 성과물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허청 박재훈 전기통신심사국장은 “양자센서 등의 양자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기술 개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기술개발 초기단계인 만큼 우리나라에도 핵심기술 및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초기부터 특허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연구개발(R&D) 전략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특허청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붙임: 간담회 개최 계획 / 사진은 행사 후 배포

담당부서	전기통신심사국 컴퓨터심사과	책임자	과 장	김상우 (042-481-5776)
		담당자	사무관	구대성 (042-481-8192)

□ 현장방문 개요

- (주제) 양자센서 분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논의
- (일시) '25. 9. 24.(수), 10:00 ~ 12:00
- (장소) 나노종합기술원(대전 유성구 소재)
- 주요 참석자
(특허청) 박재훈 전기통신국장, 김상우 컴퓨터심사과장 외 5명
(나노종합기술원) 박홍수 원장 외 6명